

# 회장으로 취임하여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와케 준코(동경도립대학)

2024년 5월 26일에 열린 2024년도 사원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제9기(통산30기)의 회장으로 선출된 도쿄도립대학의 와케 준코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2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학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더욱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학회 창립 70주년이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제가 처음 이사가 되어 학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요츠야에 사무실을 빌려 몇 명의 사무국 직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무실의 내진성능도 문제가 되어, 안정적인 학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전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심사를 거쳐 현재의 (주)국제문헌사에 사무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는데, 그 대응에 쫓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기에 걸쳐 재무담당 이사, 부회장(국제학술교류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12년 전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의 감소입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대학 등 연구교육기관에서도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나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회에서는 다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그 일원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연구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장기회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으로 정년 등으로 상근직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상근직에 종사하지 않고 25년 이상 학회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감면하여, 은퇴 후에도 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학원생 및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학술교류촉진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한일중 협력에 더하여, 서구권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부터 '학회 운영방식 검토회'를 설치하여 젊은 임원들의 시각에서 향후 학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기부터는 검토회를 상설 '학회 기본구상위원회'로 발전시켜 10년 후를 내다보고,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인문사회과학계 학협회 남녀공동참여추진연락회, 통칭(GEAHSS)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본 학회가 부간사학회, 내년 10월부터는 간사학회가 될

예정입니다. 남녀공동참여를 위해 본 학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진행된 디지털화도 연구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대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를 활용하고, 대회 등에서는 온디맨드 방식을 적절히 도입하는 등 연구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화제를 돌려서, 얼마 전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전쟁과 사회복지-역사 연구에서 배우다' 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지만, 국내외에서는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참상을 스크린을 통해 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이와타 마사미(岩田正美) 교수님이 본 학회 회장으로 계실 때, '전후 70주년인 8월 15일을 맞이하여'라는 회장 성명을 발의하였고, 사회복지계 학회연합에 소속된 여러 학회장들도 이에 동의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의 위기가 이토록 가깝게 느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중동, 중국, 북한 등 주변 국가들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전쟁의 반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모색하는 사회복지학의 의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의의를 재확인하고, 연구를 통해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2 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실행위원장 호쇼 토모코(일본복지대학)



이번 제 72 회 추계학술대회를 2024 년 10 월 26 일(토), 27 일(일) 토카이시 예술극장 · 일본복지대학 토카이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주제는 '현대 사회복지의 본질을 탐구하다'이며, 다양한 기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온디맨드 방식으로도 제공됩니다. 그럼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1. 학회 프로그램

1 일차 오전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심포지엄 '실천과 연구의 순환을 생각하다' (일본복지대학 토카이 캠퍼스)에서는 3 명의 심포지스트의 발제를 토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구지원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초기 경력 연구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획입니다.

오후에는 인근 토카이시 예술극장에서 개최식을 진행합니다. 학회장 및 토카이 시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학회상 시상식도 개최됩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 기획 심포지엄은 '생활 불안정층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활 불안정층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현대 사회복지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타로 선생님(일본의 중앙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후 3 명의 심포지스트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토카이시 예술극장의 다목적 홀에서 정보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아이치현의 음식과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일본복지대학 토카이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구두발표, 포스터 세션, 특정 과제 세션 사이에 '국제학술교류-연구의 본질을 묻다(가제)'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학회 국제학술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을 국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한 연구(국제비교연구 등)의 방향에 대해 학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마지막 기획은 학회 기획 심포지엄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유대'를 재고하다: '유대'와 '의명성'을 주제로 정하였으며, '의명성'과 '유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실천과 연구에 대해 4 명의 심포지스트의 발제를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2.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

다음으로, 몇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학회 참가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참가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9월 19일까지는 참가비 조기할인 기간입니다. 또한 정회원 중 대학원생, 대학생, 전문대생이 9월 19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경우, 추계학술대회 참가비가 면제되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박 장소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가까운 오타가와역(太田川駅)은 메이테츠 나고야역(名鉄名古屋駅)에서 17분, 중부국제공항(中部国際空港)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토카이시의 호텔과 함께 가나야마역(金山駅)이나 나고야역(名古屋駅) 부근의 호텔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점심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락 사전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7일에는 대학 내 생협 식당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물품보관소, 서점 등의 판매, 정보보장, 보육에 대해서도 준비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신청요령’

<https://www.jssw.jp/conf/72/entry.html>

본 대회가 여러분들에게 최신 연구 지견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스텝 일동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2 회 춘계학술대회 보고

전국대회 운영위원 춘계학술대회 담당  
야마다 소시로 (일본복지대학)

\*\*\*\*\*

대회 주제 :전쟁과 사회복지-역사 연구로부터 배우다

개최 일시 :2024년 5월 26일(일)13:00~17:00

회장 :메이지학원대학(明治学院大学) 시로가네 캠퍼스 본관1101교실

\*\*\*\*\*

2024년 5월 26일, 제 72 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이날 정기 사원총회와 이사회에서 제 9 기 회장으로 선출된 와케 준코 신임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일본사회복지학회 2023 년도 학술상 수상자 강연으로 하야시 켄타로 씨(게이오대학)가 수상작‘소득보장 성립사론 : 영국의‘생활보장시스템’의 형성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하야시 회원은 본 연구의 착상 및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노동과 소득보장의 관계와 노동자의 생활보장시스템이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후의 심포지엄 주제와 겹치는 내용으로, 대회 전체에 깊이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이후 ‘전쟁과 사회복지-역사 연구로부터 배우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스트로 후지이 와타루 씨(일본복지대학), 다케다 나오코 씨(와세다대학), 츠치야 아츠시 씨(간사이대학) 등 3 명이 발제자로 나서주셨고, 코멘테이터는 스키야마 히로야키 씨(노트르담 청심여자대학), 코디네이터를 야마다가 맡았습니다.

후지이 씨는 국민을 서열화하는 징병검사 기준 등을 통해 전시하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차별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케다 씨는 영국 군수부 복지부장을 역임한 B. S. 라운트리(B. S. Rowntree)에 의한 공장 복지 정책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쟁 중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조성된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츠치야 씨는 전쟁고아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그 라이프 스토리를 소개하며 전쟁이 아동에게 가져온 비참한 상황과 그 이야기가 70년 동안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세 분의 보고를 받은 후, 코멘테이터 스키야마 씨는 전시하의 복지와 전후 복지와의 연속성과 공통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복지가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점과 플로어에서 제기된 질문을 토대로,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심포지스트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의 전쟁 상황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전쟁과 사회복지’를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고 히데카즈 신임 부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전기획】Gather 를 활용한 CS-NET 살롱 개최보고

장 시밍 [張 思銘] (홋카이도대학)



2024년 3월 30일(토)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Gather 을 활용한 CS-NET 살롱이라는 사전 기획이 개최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의견 교환을 해볼까요?’라는 주제로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Gather 를 활용하며 교류하고, 2부에서는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획에는 12명의 초기 경력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Gather 의 첫 경험, 향후 CS-NET 에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일본사회복지학회 연구지원위원회 CS-NET 살롱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호다 마키 위원(호쇼대학 준교수)이 본 사전 기획의 취지와 Gather 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살롱에서 초기 경력 연구자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나 Zoom 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 기획은, 연구위원들이 살롱 이후 의견 교류의 장으로 Gather 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Gather 를 이용해 시범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ather 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서비스로, 구글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고 아바타를 만들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과 음성, 채팅,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호다 마키 위원이 사전에 분수광장과 의자 게임방을 갖춘 채팅방을 만들었고, 한 방에는 10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12명의 참가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교류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에 앉아 아바타 조작법, 영상 화면 배경 설정, Gather 의 첫 경험담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아바타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Zoom 회의로 돌아와서, 호다 마키 회원의 사회로 Gather 의 이용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Gather 는 사용하기 쉽고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Zoom 회의와 달리 게임처럼 아바타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이었습니다. 또한, 아바타를 통해 친근감이 더해져 살롱에서 교류한 후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기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Zoom 에서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 Gather 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업무와 다른 상황에서 부담 없이 접근하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Gather 에는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은 룸에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동료들과 부담 없이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전 기획을 통해 앞으로의 살롱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Gather 를 향후 살롱에 도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과제도 도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아바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ather 는 한 룸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0 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 명을 초과 할 경우의 비용 부담이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교환한 후, 코라 아사코 이사(호세이대학, 연구지원위원회 위원장)와 강민호 회원(도시샤대학)의 총평과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앞으로의 살롱 기획은 회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전 기획은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전기획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翻訳

孫 宜燮 (一橋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朴 東民 (立教大学大学院コミュニティ福祉学研究科博士課程後期課程)

#### 번역

손의섭(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박사후기과정)

박동민(릿쿄대학대학원 커뮤니티복지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